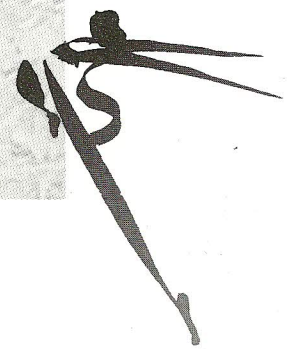


'93

접 • 은 • 춤 • 끈 • 들 • 의

# 가을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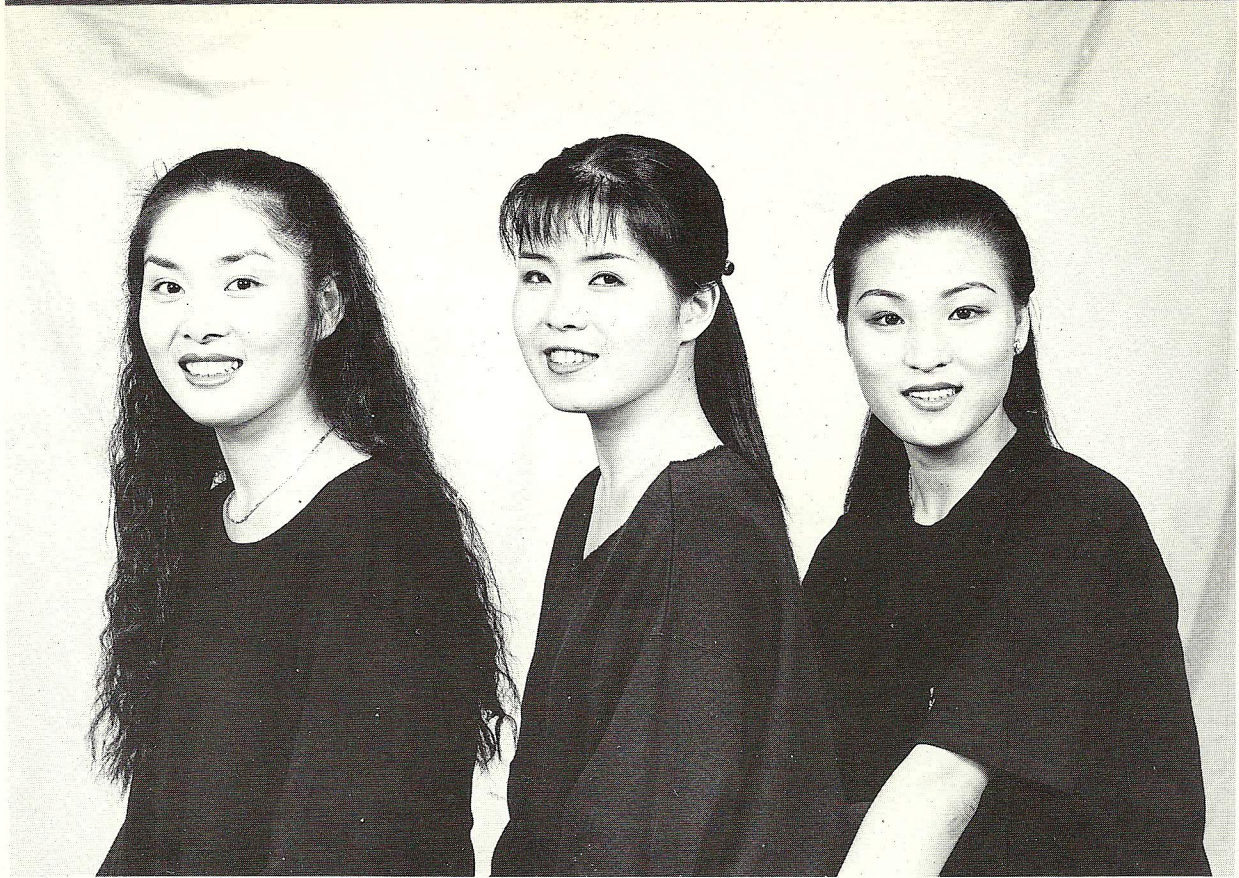


생의 두갈래 . 그대 나의 진혼가  
특별한 생 . 끝없는 길 가는 소외된 인간

'93. 9. 17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소강당  
PUSAN CULTURAL CENTER SMALL HALL



작품에설

I. 誕生의 場

인간의 탄생과 함께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혼미한 상태로 이 세상에 분출되어 진다.

II. 成長의 場

서로의 힘자랑을 하면서 선과 악이 세력확장을 위하여 이 세상을 양지와 음지로 나누어 치열한 경쟁을 한다.

III. 公存의 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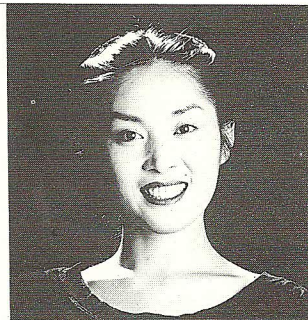
결국 서로의 세력확장은 타협에 의하여 인간 스스로의 선택에 맡기어 선과 악은 인간사에 영원한 공존을 유지한다.

참추는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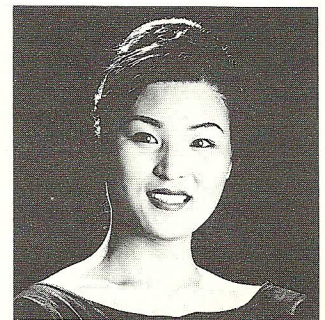


안무/서정숙  
(시립무용단 단원)

- 1966년 10월 27일생
- 부산여대 무용과 졸업
- 1990년 시립무용단 22회 정기공연 "하늘이여 사랑이여" 출연
- 1992년 일본 초청공연 "92 in 후쿠오카" 참가
- 1993년 시립무용단 29회 정기공연 '名人'의 다수
- 현/시립무용단 단원



송연주  
(단원)



김호선  
(단원)

- 도와준사람들 : 임아, 문선에, 심재숙, 공민선
- 음악 : 예그린레코드, 무대미술 : 백철호, 의상 : 예언아트

# 그대는 나의 진혼가



## 작품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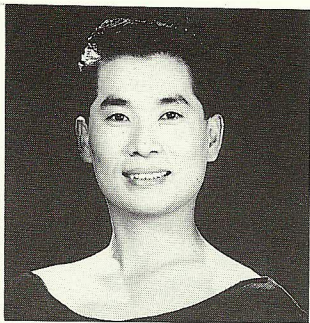
남루한 세상을 지겹게 사는 것은 기약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하여 어긋나게 살아간다면 짧은 생을 더욱 짧게 삶의 촛불을 스스로 끄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세상도 노래 부르고 모두가 즐거운 것은 내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오고 바람이 불 때 우리가 머물러 설곳을 찾듯이 세상을 잠깐 쉬어가는 쉼터로 여겨 허허롭게 살아간다면 내 마음 흘러 누구에게라도 스며들지 않을까 합니다.

철흙 어둠에 동인(瞳人)되어 그대 마음에 회향(回向)하네

그대는 나를 지피고, 나는 나를 태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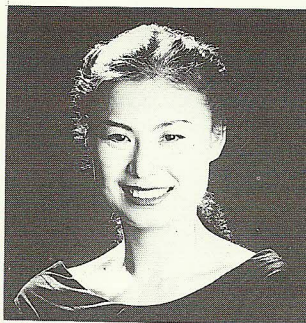
그대는 나의 진혼가.

## 참조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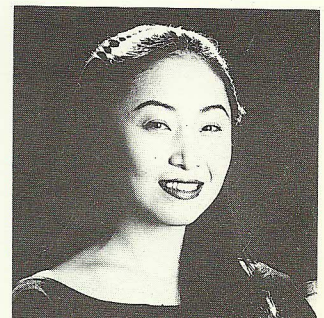


안무/장 태 현  
(시립무용단수석단원)

- 1961년 3월 20일생
- 경성대 무용과 졸업
- 1986년 시립무용단 17회 정기공연 "있으라 하더면 가라마는" 출연
- 1990년 시립무용단 22회 정기공연 "하늘이여 사랑이여" 출연
- 1992년 3월 신춘무용제 "여기가 어딘가요?" 안무
- 1992년 일본 초청공연 "92 in 후쿠오카" '무님의 음과 동' 출연
- 1993년 시립무용단 29회 정기공연 "명인" 주연
- 현 / 시립무용단 수석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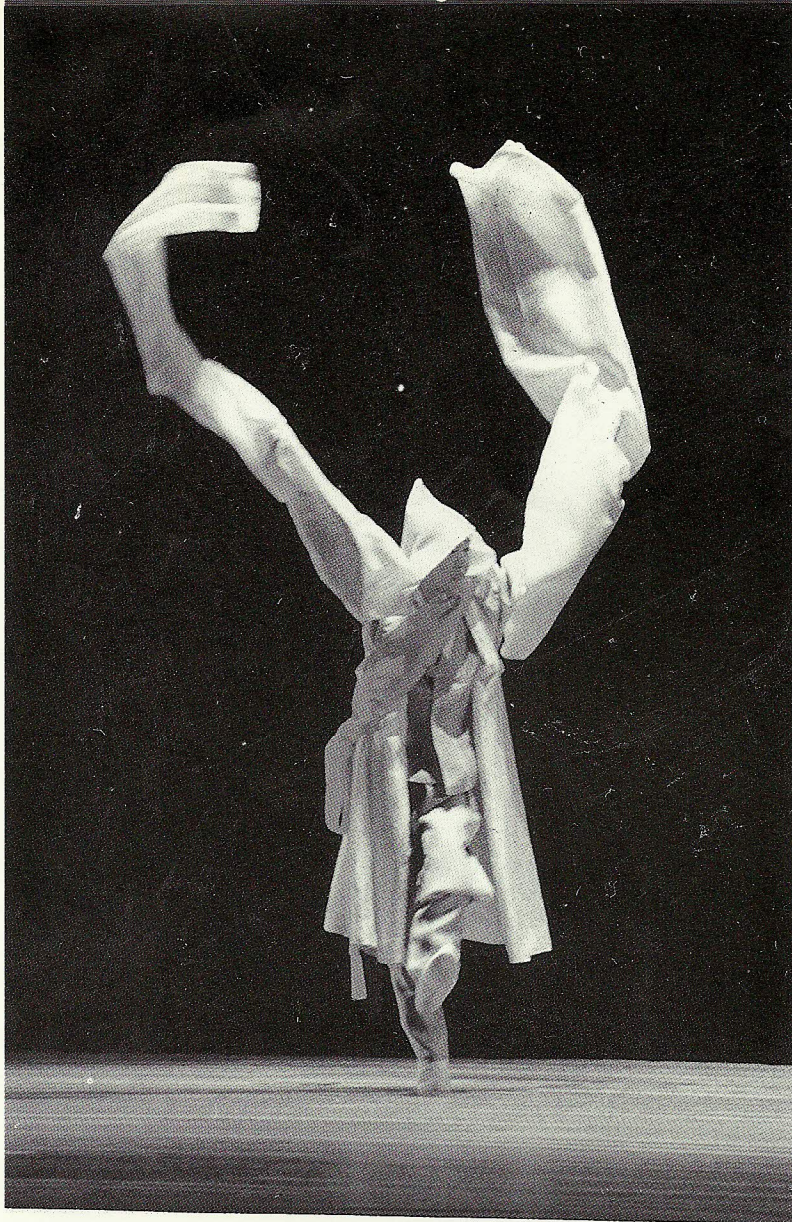


서 손 덕  
(시립무용단부수석단원)



정 진 희  
(단원)

• 도와조사라들 : 서연미, 김소, 장은미, 이서연  
• 안무 : 에드워드, 무대감독 : 박철호, 의상 : 권의상실



김진홍 (시립무용단수석안무자)

-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승무)이수자
-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대회  
요트경기 개막식 안무 "천수복"  
"화합의 길" "아름다운 산하"
- 부산시 문화상 수상(87)
- 현재 한국무용협회 부산지부장
- 경상전문대학 무용과 강사
- '92 춤의 해 운영위원
- 현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